

# 圖協 五年의 발자취(上)



## 韓國圖協이 發足되기까지

오는 4月 16日은 韓國圖書館協會가 發足한지 滿 5年이 되는 날이다 圖協의 살림을 創立時부터 말아보는 筆者로서는 자못 感慨無量한 바있다 이제 5年동안 걸어 온 발자취를 더듬어 보기로한다.

× × ×

1945年 8月 15日 日帝의 桎梏에서 解放이 되자 館界의 有志 몇분은 圖書館協會組 織을 構想하여 8月 30日 朴奉石氏를 委員長으로 하는 朝鮮圖書館協會가 結成되었다. 同年 10月 1日에 國立圖書館에 看板을 걸고 會務를 始作하였으나 別로 具體的인 事業推進을 하지 못하다가 1947年 4月 21日 總會를 열고 會長에 李在郁氏 專務理事에 朴奉石氏가 就任하였다.

朝鮮圖書館協會가 初創期에 있어서 모든 圖書館을 日人들의 손에서 接受하여 그 體制를 우리것으로 改編하는 일과 圖書館發展에 對한 多角的인 事業을 推進하든中 1950年 6.25 動亂이 勃發하여 協會의 機能은 完全 癱瘓狀態에 들어갔다.

## 創 立 (1955年)

元來 圖書館協會가 있었다함은 叙上한 바와같으나 6.25事變으로 因하여 協會 任員中 拉致된 李在郁 會長 朴奉石 專務理事을 비롯하여 大多數가 轉職, 退職 또는 行方不明이고 보니 서울 收復後 協會를 收拾할 人의 主體가 없게 졌다. 그러

## 嚴 大 變

므로 發展의 解散이라기도 困難하고 朝鮮 圖書館協會이름으로는 總會를 召集할 수 도 없게 되어 不得已 새로운 團體로서 韓國 圖書館協會를 創立하게 되었다. 韓國 圖書館協會의 結成經緯는 1955年 3月 16日 서울市內의 各 圖書館代表者가 會合懇談 하였는데 名稱은 韓國圖書館協會로 改稱 하고 朝鮮圖書館協會를 繼承하자는 論도 나왔으나 舊任員의 任期가 滿了된지 오래고 現在 大多數의 任員이 館界를 떠났으므로 不得已 自然消滅로 認定하는 同時에 懇談會를 韓國圖書館協會 創立準備委員會로 性格을 바꾸어 數次 會合 討議한 結果 同年 4月 16日에 創立總會를 國立圖書館에서 開催하게 되었다.

當日 京鄉 各地에서 98名의 圖書館人이 參集한 가운데 大盛況을 이루었다 會則을 審議 決定한 後 아래와 같은 建議案을 政府에 提出할 것을 決議하였다.

1. 文教部長官 國會文教委員長에게 提出할 建議案  
가. 圖書館法을 早速히 制定公布할 것  
나. 圖書館學校의 設立을 促進하기 爲하여 圖書館學을 專攻할 留學生을 海外에 派遣할 것.  
다. 各道에 道立 圖書館을 年次計劃으로 每年 一個所式 設置할 것.

그리고 이날 選出된 任員은 다음과 같다.  
會 長 趙根泳(國立圖書館長)  
專務理事 李鳳順(梨花女大圖書館長)

- 理事 具泰會(南大門圖書館長)  
 " 金鍾洙(全南大學校圖書館長)  
 " 朴相培(釜山市立圖書館長)  
 " 沈鍾悅(國會圖書館室長)  
 " 沈仁坤(延禧大學校圖書館長)  
 " 嚴大燮(慶州邑立圖書館長)  
 " 吳泰鎮(陸士圖書館長)  
 " 李揆東(慶北大學校圖書館長)  
 " 張仁植(仁川市立圖書館長)  
 " 鄭光鉉(서울大學校圖書館長)  
 " 韓相憲(全北道立圖書館長)  
 " 洪尙舜(韓國銀行圖書館課長)
- 幹事 嚴大燮(兼任)

總會後 國立圖書館의 廊下一偶에 事務室을 定하고 古物 冊床 椅子 1個式을 빌려서 財政없는 살림을 開始하였다 4288 年度에 推進한 事業中 드러난 몇가지를 더듬어 보면 다음과 같다.

政府에 建議書 提出

總會에서 決議된바에 依하여 文敎部長官, 內務部長官, 國會文敎委員長에 各各 다음과 같은 建議書를 5月1日字로 提出하는 一便 關係當路者를 屢訪하여 本件建議 貫徹에 努力하였다.

建議書

一. 圖書館學校 設立의 促進과 그 準備을 爲하여 海外에 圖書館學을 專攻할 留學生을 派遣할것. (文敎部長官앞)

理由

學校敎育과 社會敎育에 있어서 圖書館의 使命이 重大하온바 圖書館事務特히 圖書의 分類編目等은 純全히 專門的 技術部面에 屬한.

現在 本協會傘下百餘個所의 各種圖書館과 數個所의 新設圖書館에서 司書의 韓旋을 本協會에 呼訴하오나 束手無策인 實情

임.

二. 圖書館法을 早速히 制定公布할것.  
 (文敎部長官, 國會文敎委員長앞)

理由

韓國의 圖書館 實情은 實로 寒心하온바 法的으로 育成하지 아니하고는 民間運動면으로는 正常的 發展을 圖謀할수없음.

三. 各道에 道立圖書館을 年次計劃으로 每年 1個所씩 設置할것.

理由

韓國의 人口에 比해서 大學의 比率은 先進國家를 凌駕할지경이며 中高等學校도 다른 後進國에 比해서 遜色이없으나 公共圖書館의 實情은 比較할 餘地도 없이 極度の 跛行的인 奇現象을 露呈하고있는바 社會敎育機關으로서 公共圖書館의 使命의 重大性을 認識한다면 이대로 放置할수없으니 現下의 國家財政으로서 國立圖書館의 增設은 期待하기 어려우되 道立圖書館의 年次 設立은 可能하다고 思料됨.

(本件은 文敎部長官 및 內務部長官앞)

韓國圖書館協會總會의 決議에 依하여 위와 같이 建議함.

韓國圖書館協會長 趙 根 泳

圖書館法案草案(第一案)提出

館界의 懸案인 圖書館法制定을 促進하기 爲하여 朴熙永氏와 筆者가 起草委員이 되어 全文4章 13條로된 圖書館法案草案을 作成하여 立法資料로서 同年 7月3日 文敎部에 提出하였다.

內 外國機關에 對한 協助要請

同年 6月4日 駐韓美國敎育使節團에 韓國圖書館事業發展에 對한 特別措置를 要請 同年 6月7日 溫코라, 韓美財團, 亞細亞財團, 유네스코本部, 國際圖聯에 對하여 韓國圖書館事業에 對한 協助를 要請.

大學課程의 圖書館學校 設立

同年 10月1日 韓美財團에 對하여 大學課程의 圖書館學校設立에 對한 協助를 要請하였던바 그後 財團側과 圖協이 屢次會議를 거듭한 끝에 韓美財團의 韓旋에 依하여 O. E. C. 援助로 延世大學校에 圖書館學科를 設置케 되었다.

#### 全國圖書館 實態調査

1955年 7月2日 第1回 全國圖書館 實態調査를 實施하여 우리나라에서 唯一한 圖書館統計가 이루어졌다.

國際圖書館協會 聯合會(I F L A)에 正式加盟.

國際의인 提携와 協助가 館界 發展의 捷徑이라는 見地에서 本協會는 일찌기 유네스크韓國委員會의 韓旋으로 國際圖書館協會聯合會 加盟을 申請中이든바 1955年 9月8日 네덜란드의 라이덴 에있는 I F L A 本部로부터 正式 加盟되었다는 通知에 接하였다. 이로써 우리 圖書館界도 國際機構의 一員으로서 活動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다.

#### 圖書館 實務講習會

圖協 創立以後 時急히 要請되는 圖書館人의 質的 向上을 圖謀하기 爲하여 1955年 10月1일부터 18日間에 걸쳐 圖書館 實務講習會를 가졌는데 특히 亞細亞財團, 韓美財團, 國立圖書館, 國會圖書館에서 經費援助를 받아서 講習會經費를 마련하였고 地方圖書館에서 參加한 受講者에게 2萬圓式 旅費를 補助하는等 協會로서 最善을 다했던 것이다. 第1回講習會의 講習時間은 100時間이며 修了者는 80名이었다. 특히 이講習會에 使用한 各種 教材가 館界의 業務參考書로서 큰 役割을 하게 된것은 만가운 일이었다.

#### 讀書週間

韓國圖書館協會 發足以後 처음으로 1955年 11月21일부터 同27日까지 1週日間에 걸쳐 大韓出版文化協會와 圖協共同主催로 讀書週間을 實施하였다. 週間中 圖書展示會 全國圖書館無料公開 放送講演·放送 드라마 座談會 新聞特輯等 多彩로운 行事를 가짐으로 一般 國民의 讀書熱을 鼓吹시키고 圖書館에 對한 認識을 새롭게 하였다.

創立當時의 年末現在 會員數는 53個 圖書館(特別會員) 이었고 會費收入은 63萬 2千圓이었다. (普通會員은 募集하지 않았음) 財政面에서 特記할 일은 한푼도없이 發足한 圖協이 當年에 50萬圓의 基金을 樹立한것은 큰所得이었다.

同年의 事務局事情은 筆者가 局長, 書記, 給仕를 兼務하여 國立圖書館 여러분 의 協力을 얻어 苦難의 해를 보낸 것이다.

#### 1956年

##### 圖協을 社團法人으로 改編

圖協이 하나의 任意團體로서는 事業推進에 支障이 많으므로 2月4日 理事會에서 同年 4月20日에 開催되는 總會를 契機로 協會를 社團法人으로 할것과 이에 對한 定款起草委員 6名을 選出하였다. 起草委員에는 趙根泳, 李鳳順, 具泰會, 高在昶, 朴熙永 諸氏와 本人이 選任되었다.

總會 決議를 거쳐 5月18日 文敎部長官에게 社團法人 設立認可申請書를 낸것이 6月18日자로 社團法人 韓國圖書館協會 設立이 許可되었다 이를 法院에 登記하여 法人으로서 活躍하게 되었음은 協會로서 一步 前進한 것이라할 것이다.

##### 圖協第2次定期總會開催

同年 4月20日에 開催된 總會는 全國 42個 圖書館에서 參席한 114名의 圖書館人으로 盛大하였고 選出任員은 다음과 같다.

會 長	鄭光鉉(서울大學校圖書館長)
專務理事	金敬洙(國會圖書館長)
常務理事	具泰會(鍾路圖書館長)
"	李鳳順(梨大圖書館長)
"	鄭泓燮(國立圖書館長)
理 事	金仍石(東區大學校圖書館長)
"	金鍾洙(全南大學校圖書館長)
"	金元圭(서울中高等學校長)
"	閔泳珪(延世大學校圖書館長)
"	朴喜學(交通圖書館長)
"	朴相培(釜山市立圖書館長)
"	李揆東(慶北大學校圖書館長)
"	蔡官錫(高麗大學校圖書館長)
"	崔震武(海軍士官學校圖書館長)
"	黃圭郁(大邱市立圖書館長)
監 事	李熙雲(韓國銀行圖書館室)
"	張仁植(仁川市立圖書館長)
參 與	高在昶(國會圖書館圖書課長)
"	朴熙永(梨大圖書館司書長)
"	白 麟(서울大圖書館司書長)
"	張琿性(國立圖書館司書官)

AFLA(亞細亞圖書館協會聯合會)에 加入.

各國 圖書館團體와 協助 提擧하기 爲하여 前年에는 IFLA에 加入한바 있는 本協會에서는 다시 亞細亞圖聯에 加入할 것을 4289年 3月7日 理事會에서 決議하였다. 3月31日字로 加入을 申請推選한바 本協會는 AFLA의 1員이 되었다.

#### 外國圖書 輸入促進

우리나라 學術文化 向上을 爲하여 海外의 良書を 輸入함이 極히 重要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協會에서는 4289年 2月23日 字로 文教部, 財務部, 復興部 各長官에게 다음과 같은 要旨의 建議書를 提出하였다.

1. 現在 公署室 所管의 海外 定期刊行物 輸入을 爲하여 外貨가 配定되어 있는 例에 準하여 海外圖書 輸入을 爲하여서도 同様の 外貨配定을 行하여줄것.

2. 美國의 前 F. O. A. 現 I. C. A. 援助를 받고있는 數多의 國家가 이 資金으로 外書を 輸入하고있는 例에 鑑하여 我國에서도 1957年度 I. C. A. 輸入計劃에는 圖書를 包含시켜 주실것.

3. 我國도 美國과 I. M. G. (International Media Guarantee Program) 契約을 締結하여 美國으로부터의 圖書輸入에 對하여는 輸入業者가 政府의 圓貨로서 決済하는 方途를 열여 주실것.

4. 前3項을 合한 年間 總配定額이 60萬弗에 達하도록 政府의 外貨豫算의 形便에 依하여 適宜 安排하여 주실것.

以上과 같은 建議書를 提出한 보람있어 同年 7月10日附로 I. C. A. 資金 20萬弗이 外書 導入에 御當 되었고 其後繼續 御當을 받게 되었다.

#### 委員會 事業

圖協의 事業을 推進하는데이여 委員長 活動이 中心이 되어야 한다는 見地에서 6月2日 理事會를 開催하고 委員會規程을 審議 通過하는 한便 8個 委員會의 委員長를 다음과 같이 選出하였다.

分類委員長 高在昶(國會圖書館圖書課長)

編目委員長 朴熙永(梨大圖書館司書長)

術語委員長 李鳳順(梨大圖書館長)

建築用品委員長 張琿性(國立圖書館司書官)

出版委員長 白 麟(서울大圖書館司書館長)

法制委員長 金聖源(國會圖書館閱覽課

長)

教育委員長 鄭泓燮(國立圖書館長)

文獻行政委員長 金敬洙(國會圖書館長)

同年の委員會는 于先 標準分類法制定과 標準編目法制定 事業에 着手하여 많은 活動을 하였으나 큰 業績을 올리지 못하고 次年度에 繼續推進하게 되었다.

全國圖書館實態調査

第2回 全國圖書館實態를 調査 同年 8月 8日 「韓國圖書館一覽」을 作成하여 內外關係機關 및 會員에게 配付하였다.

昨年보다 좀더 具體的인 實態를 把握하기爲하여 努力하였으나 大多數圖書館이 未整理狀態이므로 近10回의 督促끝에 完成한 것이다.

國庫補助金 獲得

全國의 圖書館이 100個에 未達였은 當時의 圖協으로서 財政을 會費에만 依存한다는 것은 큰 無理였다. 圖協은 文教部에 對하여 國庫補助를 要請하여 百方으로 努力한 結果로 年間 150萬圓의 國庫補助를 獲得하였다.

圖書館法 推進

圖書館法을 早速制定하라는 口號下에 積極推進하였으나 나타난 큰 成果는 없었다 實務講習會

이해에는 10月22일부터 同 31日까지 10日間に 걸쳐 圖協主催의 講習會를 國立圖書館에서 開催하였다. 受講 志願者가 100餘名에 達하였으나 場所關係로 不得已 86名을 受講케 하였는데 參加圖書館 52個館中 地方圖書館이 31個館에 達하였다.

協會에서는 韓美財團의 援助를 받아 受講者의 旅費를 補助하였다.

讀書週間

1956年度의 讀書週間은 圖協單獨行사가 되었다. 協會에서는 讀書週間行事를 圖書館認識運動의 方向으로 推進하는 計劃下

에 全國의 日刊紙, 週間紙, 放送局 其他 關聯處에 讀書週間 趣旨書와 같이 韓國圖書館과 外國圖書館의 比較表 其他資料를 同封한 懇曲한 協力 要請書를 보낸 보람이 있어 言論界의 格別한 協助로 一大國民運動으로의 土氣를 마련하게 되었다.

유네스코本部 圖書館局職員 推薦

유네스코 韓國委員會의 韓旋과 圖協理事會의 推薦에 依하여 美國에서 圖書館學을 專攻한 本會會員 申載淑媛이 유네스코 巴里本部 圖書館職員으로 招請받아 同年 1月3日 渡佛하게 되었다. 韓國의 圖書館人으로서 國際舞臺에서 일하게 된 것은 우리 館界의 자랑이 아닌 수 없는 일이다.

1956年度의 館界는 뉴-저랜드 圖書館學校에 留學中이든 高在昶氏의 歸國을 맞이하여 活氣를 띄우게 되었고 圖協에서 注力한 圖書館認識運動을 通해서 當路者는 勿論 一般國民의 圖書館에 對한 認識이 顯著하게 高潮된바 있다.

同年 年末現在의 會員數는 特別會員 69個 圖書館이었고 (普通會員募集은 協會로서 直接的인 惠澤을 주지 못한다는 見地에서 繼續保留하였음) 財政은 會費收入 84萬3千圓이 있고 前年度에 樹立한 基金 50萬圓을 繼續維持하였다.

事務局事情은 서울商大 在籍生으로서 國立圖書館 洋書係에 勤務中이든 趙洙永氏를 當時의 趙根泳館長에게 3個月間 強請 끝에 割愛받아 筆者와 둘이서 繼續國立圖書館 廊下 事務室에서 執務하다가 同館 前面小建物로 移轉하였고 年末에는 苦心 끝에 電話를 架設하고 나니 事務室로서 간신히 面目을 갖추게 되었고 마치 큰 發展이나 한 것 같은 氣分이었다. 이해부터는 政府의 圖書館關係業務의 代行을 비롯하여 京鄕의 新設圖書館의 諸般相談에 應하는 등 매우 奔忙한 날을 보냈다